

# 성별 학급구성이 교우 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이준엽\* · 신형진\*\*

## 초 록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므로 학급은 또래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회화의 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화의 과정에서 때때로 또래 사이에서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비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교 내의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할 수 있으며 행위자와 대상자 모두가 학생인 비행행위로 정의할 수 있는 '교우 간 비행'에 집중하여, '성별 학급구성'이 '교우 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별 학급구성'은 성별을 기초로 한 학급의 구성방식으로, 단일학급과 혼성학급, 분리학급으로 구분된다. 이에 내포되어 있는 '성차'가 교우 간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를 넘어서 '학급구성' 자체가 하나의 생태체계적 맥락이자 환경적 조건으로 독립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 1패널 4년차 자료(2013)를 활용하여 '성별 학급구성'이 청소년의 '교우 간 비행'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성별 학급구성의 성차를 넘어서 독립적 영향력은 가해경험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피해경험에서 남학생 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를 통해 그 가능성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앞으로의 청소년 비행연구에서 '성별 학급구성'을 중요한 변수로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교내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행을 예방하는 정책의 마련에서 성별 학급구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성별 학급구성, 청소년 비행, 또래관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제1저자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h.shin@knu.ac.kr

## I. 서 론

또래집단(peer group)은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에, 또래는 가장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로서 그들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기준이 된다(김원중, 2004; 김은정, 2009). 이러한 사회화 과정의 일부로, 때때로 또래 사이에서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비행행위가 일어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또래 사이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비행의 문제를 학교 내의 친구사이에서 일어나는 비행으로 정의할 수 있는 ‘교우 간 비행’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교우 간 비행’의 문제는 ‘또래관계문제’,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의 개념으로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교우 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비행 행위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김선애, 2004; 송영혜, 2012; 양경화, 2015; 이완희, 황성현, 이창한, 문준섭, 2017). 그러나 교우 간 비행은 또래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에, 또래집단이 형성되는 환경적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또래집단은 학교, 학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형성되나, 학교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또래와 접촉하는 공간이다. 학교 안에서 학급구성은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형성을 제한하는 환경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교우 간 비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적 조건인 학급구성의 영향력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급구성은 학생의 성별, 장애여부, 학업성취도, 교육정책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 중 성별에 따른 학급구성은 청소년 개인의 젠더(gender)사회화와 관계형성 및 상호작용 방식, 정체성 형성에 독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른 학급구성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1패널 4년차(2013)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 학급구성이 교우 간 비행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성별 학급구성이 교우 간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성별 학급구성이 단순한 성차를 넘어 특정한 영향력을 띄는지 알아볼 것이다.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1. 청소년의 ‘교우 간 비행’

본 연구의 종속변수라 할 수 있는 청소년의 ‘교우 간 비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정의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 비행(juvenile deviance)은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시기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이 행하는 지위에 걸맞지 않은 사소한 불량행위부터 위법한 범죄행위 등을 포함하여 한 사회의 규범적 규칙과 기대에 반하는 그릇된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서봉언, 2014).

청소년 비행은 연구 주제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이라는 4가지로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준호, 노성호, 1992; 이해은, 최정아, 2008; 서봉언, 2014; 이완희, 황서현, 이창한, 문준섭, 2017). 지위비행이란 법률상으로 위법행동은 아니나 청소년이라는 지위에 맞지 않는 문체행위를 의미하며, 가출, 무단결석, 음주, 흡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성비행은 성과 관련된 비행행위로 성관계, 유해 업소출입, 음란물 시청 등이 포함되고, 재산비행은 타인 소유의 물적 자원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으로 돈이나 물건 훔치기 등이 포함된다. 폭력비행은 타인에게 폭력행위를 하는 것으로 패싸움, 때리기, 놀리기, 뺨뜯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위비행과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의 분류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은 개념이나, ‘교우 간 비행’의 정의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정의를 통해 배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정의하는 ‘교우 간 비행’은 교우 간에 일어나는 행위자와 행위의 대상자가 학생이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할 수 있는 일련의 비행행위이다. 따라서 교우 간에 발생할 수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할 수 없는 ‘물건 훔치기’와 ‘패싸움’과 같은 비행과 ‘성관계’, ‘음란물 시청’, ‘유해업소 출입’과 같은 성적인 일탈은 제외된다.

교우 간 비행과 유사한 개념으로 ‘학교폭력’을 들 수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폭행, 상해, 감금, 위협, 약취, 유인, 모욕, 공갈, 강요, 명예훼손, 따돌림, 성폭력, 언어폭력 등 폭력을 이용하여 학생의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주는 폭력행위

이다(양경화, 2015). 학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노성호, 2004), 학교폭력은 본질적으로 학생 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비행행위를 지칭하므로 교우 간 비행과 개념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피해자만 학생인 경우, 즉 교사에 의한 폭력이나 외부 폭력집단에 의한 문제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이고 또래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행행위를 지칭하는 교우 간 비행의 개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이며, 또래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행위를 지칭하는 ‘집단따돌림’도 교우 간 비행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집단따돌림은 학생 간의 단순한 폭력행위를 넘어선 지속적, 반복적,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한 행위라는 점(Olweus, 1996; 김선애, 2004; 노성호, 2004; 박진영, 채규만, 2011)에서 또래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임을 전제하는 교우 간 비행보다는 한정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우 간 비행’은 또래집단 내부(교우 간)에서 일어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할 수 있으며 행위자와 대상자 모두가 학생인 비행행위로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과 유사하나 구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2. 비행 및 또래관계의 성차

‘성별 학급구성’은 남녀공학(co-education)과 단성학교의 구분(오민아, 2013)을 확장한 개념으로, 남녀공학 안에서도 성별 분리학급이나 혼성학급이라는 상이한 학급구성으로 남녀 청소년이 조직되는 방식을 포함한다. 성별 학급구성에서 단일학급은 한 가지 성별로 구성되는 남학교에서의 남학생 학급 또는 여학교에서의 여학생 학급을 의미하며, 분리학급은 남녀공학 중 학급이 한 가지 성별로만 구성되는 일명 ‘분반’을, 혼성학급은 남녀공학 중 남학생과 여학생이 섞여서 학급이 구성되는 일명 ‘합반’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성학교와 남녀공학을 구분하는 것을 넘어 단일학급, 분리학급과 혼성학급 역시 구분하여 이러한 성별 학급구성이 교우 간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남녀공학에서 분리학급과 혼성학급을 구분하는 이유는 이러한 구성에 따라 이성과의 접촉의 빈도와 강도 등 학급 내에서 이성 및 동성과 상호작용

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Stromquist, 2007), 그 결과 교우 간 비행의 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별 학급구성의 기본요소는 '성별'이므로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비행 양상의 차이와 또래관계를 맺는 방식의 차이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 비행의 측면에서 보면, 여자청소년들 역시 남자청소년 만큼이나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용린, 최지영, 백수현, 김영주, 2007; 조윤오, 2013). 그러나 남자청소년의 경우 폭력적이고 신체적이며 가시적인 비행이 주로 이루어지는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보다 간접적이고 언어적이며 비가시적인 비행을 일으킨다(문용린 외, 2007; 조윤오, 2013; 서봉연, 2014). 발생과정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학생의 경우 힘을 과시하고 학급 내 권력을 재편성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르나, 여학생의 경우 특정한 관계 속에 안전하게 소속되기 위해 배타적 우정을 나타내는 편 가르기를 위해 비행행동을 하게 된다(문용린 외, 2007; Lee & Youm, 2013).

이해경과 김혜원(2011)에 따르면,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보다 친구관계의 지속기간이 길고 여자청소년보다 더 큰 친구집단을 갖는다고 한다. 반면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보다 더 집중적이고 빈번하고 친밀한 2인 관계의 양상을 보이고, 남자청소년보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이성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안수영과 이형실(2009)은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친밀한 대화나 충실성을 중시하며 더 관계지향적이나, 남자청소년은 좀 더 직접적인 마찰을 통해 또래관계를 형성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비행과 또래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의 비행 및 또래관계문제의 성차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단순한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또래관계를 구성하는 방식인 성별 학급구성은 중요요소로 고려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서 Gee와 Cho(2014)가 단성학교의 여학생이 공학의 여학생보다 집단따돌림 정도가 낮고, 단성학교의 남학생이 공학의 남학생보다 더 많은 집단따돌림을 경험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위 연구는 학급구성보다는 학교형태에 주목하였으며, 본 연구와 같이 혼성학급과 분리학급의 구분을 하지 않고, 단성학교와 남녀공학만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렇듯 비행 및 또래관계의 성차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 내에서는 단성학교와 남

너공학을 구분한 연구는 있었지만, 단일학급, 분리학급, 혼성학급으로 구분한 연구는 없었다. 한편 일탈 연구는 아니지만 Lee, Turner, Woo and Kim(2014)은 남녀공학의 혼성학급과 분리학급을 구분하여 성별 학급구성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이처럼 성별 학급구성은 학업성취에서처럼 비행 및 또래관계의 양상에 특정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3. 생태체계적 관점과 학급구성

그렇다면 성차를 넘어서서 학급구성이라는 환경적 조건은 교우 간 비행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가? Bronfenbrenner(1992)의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아동 및 청소년은 하나의 유기체로, 이들의 사회적 발달과 성격의 형성은 발달과정에서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와 같은 사회적 체계와 청소년 개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한다고 설명한다.

미시체계는 개인이 직접 접촉하는 부모와 형제와 같은 가족 및 개인생활의 주변으로 이루어진다. 중간체계는 또래집단과 친척, 교사와의 관계, 마을 내에서의 관계와 같이 미시체계와의 상호 연계를 구성된다. 외체계는 부모의 학교 참여나 교육정책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이 거시체계가 미시·중간체계에, 미시체계가 중간·거시체계에 개입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진다. 거시체계는 아동 및 청소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전체적인 분위기나 규범, 문화적 특징으로 이루어진다(Bronfenbrenner, 1992).

이러한 체계구별은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환경적 맥락을 가리키는 것으로,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각각이 정확히 배타적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또래집단의 경우 가족과 같이 개인이 직접 접촉하는 개인생활의 주변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또래집단은 고등학생의 학교 친구집단으로 학교라는 환경적 조건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또한 각 청소년의 가족 간의 상호연계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중간체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중 또래관계에서 일어나는 비행과 같은 문제는 개인과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 및 사회적 규범 간에 일어나는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Sweater, Espelage & Napolitano, 2011). 이러한 생태체계적 관점에 따르면 학급구성은 교육정책이라는 거시체계에 의해 정해지며 학교 및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체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어떤 급우와 함께 지내고, 학급의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학급구성은 학급환경(classroom environment)의 일부로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생태체계적 맥락이다(Miller & Cunningham, 2011). 따라서 학급구성은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를 생태체계적 환경의 하나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Benbenishty와 Astor(2005)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기반으로 이웃, 가족, 학교, 젠더 등 다양한 맥락적 요인과 학교폭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Davis, Randall, Ambrose and Orand(2015)는 온라인 속에서의 집단따돌림이라 할 수 있는 ‘Cyberbullying’을 연구하면서 학급의 공간적 맥락이 따돌림의 양상과 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 Cotterell(2007)은 따돌림이 발생하는 상황적 요인으로 집단구조를 중요요소로 제시하였으며, 따돌림이 집단 내 성원과 집단 밖 비구성원을 구분지어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소속감과 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하였다. Thornberg(2010) 역시 집단구조에 주목하여 따돌림이 ‘다름’을 배제하는 수단 혹은 기존 집단 성원에 대한 ‘응징’ 수단으로써 사용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선행연구들은 학급구성을 생태체계적 환경의 중요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이지영 외(2016)가 학급의 공간적 맥락과 또래관계의 구조에 집중하면서 최초부터 배제되는 ‘외톨이형 따돌림’과, 갈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관계형 따돌림’을 구분한 바 있으며, 김은정(2009)은 생태체계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또래관계의 상호작용 내에서 파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연구들은 주로 질적 방법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며, 학급맥락과 또래관계에 주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급구성이라는 중요한 환경적 요소를 간과하였다.

본 연구는 Davis et al.(2015)의 연구와 같이 특정한 요소, 즉 성별 학급구성이 생태체계 내의 상호작용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양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계량적인 방

범론을 도입한 국내연구는, 우선 김광웅과 문수경(2005)이 실행한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오승환(2007)의 집단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다양한 체계요인들을 분석하였으나 특정한 중심요소의 영향력을 파악하지 않았다. 임하늘, 최재용과 이윤호(2015)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통해 집단따돌림 관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창훈과 송주영(2009) 역시 생태체계적 관점으로 직접 수집한 자료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생태체계적 비행요인의 차이를 밝혀내고자 했다. 그러나 두 연구 역시 본 연구와 달리 특정한 요인의 중심 효과를 조사하기 보다는 비행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요인을 파악하는데 그쳤다.

이와 같이,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적 관점은 특정한 요인의 중심 효과보다는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체계 내의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에 주로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성별 학급구성’이라는 특정한 단일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학급 구성을 단순한 발달과정 상의 체계 중 하나로 간주하기 보다는 개인의 비행에 독립적인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성별 학급구성은 청소년 개인의 발달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체계이자 학급환경(classroom environment)으로, 교우 간 비행에 단순한 ‘성차(gender difference)’를 뛰어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양적방법을 통해 성별 학급구성이 생태체계적 맥락 속에서 교우 간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1패널 4년차(2013) 자료를 이용하였다. 2010년부터 실시된 이 연구는 초1, 초4, 중1의 총 3개 패널 7,071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추적조사가 실시되었다. 표본추출은 목표표본을 6,600명으로 설정하고 2010년 16개 광역시 및 도의

도시규모를 교차하여 추출한 27개 집락별로 확률 비례추출에 의거하여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 무작위로 표본학급을 선정, 거절 학교 및 학급에 대해서는 인접 학교 및 학급으로 대체하였다.

성별 학급구성이 교우 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표집된 한정적 자료보다는 전체적인 대표성을 가진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는 한국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자료 중 전체 청소년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엄밀한 표집과정을 거친 가장 대규모의 전국적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임하늘 외(2015) 역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를 생태체계적 관점에서의 분석에 사용한 바 있다.

중1패널 4년차(고등학교 1학년)자료를 선택한 이유는 중1패널 전체자료에서 4, 5, 6년차(고1, 고2, 고3) 자료에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성별 학급구성에 대한 세분화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청소년 비행의 남녀차이가 고등학생 집단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서봉연, 2014)와 고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비행의 빈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기존의 연구들(이완희 외, 2017)을 참고한 결과이다.

2013년에 실시된 4차년도 중1패널은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며 총 표본 사례 수는 2,351명이고, 표본 학급 수는 78개이다. 이들 중 전체 응답에 대답하지 않은 243명을 제외한 총 2,080명이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변수의 측정

### 1) 종속변인: 교우 간 비행 가해 및 피해경험 유무

본 연구에서는 ‘교우 간 비행’을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으로 나누어 각각의 경험유무를 측정하였다. 가해경험은 친구 놀리기, 왕따시키기, 때리기, 헐박하기, 뺨뜯기, 성폭행과 성희롱 총 6문항의 여부이며, 피해경험 정도는 놀림당하기, 왕따당하기, 맞기, 헐박당하기, 뺨뜯기기, 성폭행과 성희롱 총 6문항의 여부로 구성하였다. 각 경험이 가해와 피해에서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 ‘있음’, 한 번도 없는 경우 ‘없음’으로 구성되었다.

‘음란물 시청 및 유흥업소 출입’은 지위비행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성관계’의 경우 비행행위자와 대상자가 모두 학생일 가능성이 높으나 ‘성폭행 및 성희롱’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물건 훔치기’의 경우 학생 간에 일어나기보다는 상점 내 절도 등과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기에 제외되었다. ‘패싸움’의 경우 학생 간에 일어나는 비행행위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각각의 비행행위에 대한 액면적 검토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할 수 있으며, 행위자와 대상자가 교우인 비행행위”를 선택하는 것으로 그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비행행위, ‘놀림’, ‘왕따’, ‘때림’, ‘협박’, ‘뺨’, ‘성폭력 및 희롱’을 ‘교우 간 비행’으로 선택하였다. 선택된 여섯 가지 비행행위는 행위자와 대상자가 교우가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의 여섯 가지 비행행위는 교우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되므로 자료에서 선택하였다.

## 2) 독립변인 : 성별 학급구성

독립변수로 사용된 성별 학급구성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남녀공학과 단성학교의 구분을 세분화한 것이다. 자료에서 ‘남녀공학 여부’ 변수는 ① “남자학교”, ② “여자학교”, ③ “남녀공학교이고 남자/여자 반이 따로 있다”, ④ “남녀공학교이고 남녀합반이다”, ⑤ “학교를 다니지 않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제외한 후, 성별과 교차하여, ① “남학교-남학생” ② “남녀공학 분반-남학생” ③ “남녀공학 합반-남학생” ④ “여학교-여학생” ⑤ “남녀공학 분반-여학생” ⑥ “남녀공학 합반-여학생”으로 구성하였다. 앞으로 이를 각각 ‘남학교’, ‘분반남학생’, ‘합반남학생’, ‘여학교’, ‘분반여학생’, ‘합반여학생’으로 칭하기로 한다.

## 3) 통제변인 : 생태체계적 맥락 변인

비행에 관련한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교우 간 비행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다양한 생태체계적 맥락 변인을 통제하였다(김준호, 1994; Olweus, 1996; 신혜섭, 2005; 문용린 외, 2006; Macklem, 2006; 오승환, 2007; 박현수, 김준호, 2008; 이혜은, 최정아, 2008; Swearer, Espelage & Napolitano, 2011; 박진영, 채규만, 2011; 송주영, 2013;

조영일, 2013; 조운오, 2013; 이완희 외, 2017). 생태체계적 맥락 변인은 유기체적 특성인 ‘개인적 기질’과 미시체계인 ‘가정환경’, 중간체계인 ‘학교환경 및 지역사회’, 거시체계인 ‘공동체의식’으로 분류하여 통제하였다.

개인적 기질(유기체적 특성)은 공격성점수, 사회적 위축점수, 우울점수, 자아탄력성 점수, 삶의 만족도점수로 구성되었다. 각각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문항들의 값의 합을 각각 100점 단위의 점수로 변환하였다. 각각은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개인의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Cronbach's  $\alpha$  값을 살펴보면, 공격성이 0.79(6문항), 사회적 위축이 0.88(5문항), 우울이 0.89(10문항), 자아탄력성이 0.83(14문항), 삶의 만족도가 0.81(3문항)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미시체계)에는 결손가정여부, 가계빈곤여부, 부모관계점수, 부모방임점수, 부모학대점수가 포함된다. 결손가정여부는 양측 부모가 있는 경우를 0, 아닌 경우를 1로 가변수화 하였으며, 가계빈곤여부는 전체 응답자의 가계소득을 3분위로 나누어 상, 중, 하로 변수를 서열화하였다. 부모관계점수와 부모방임점수, 부모학대점수는 개인적 특성에서 다른 요소들과 같은 방식으로 4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들을 합산하여 만들어졌고, 각각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관계가 좋고, 부모가 방임주의적 양육방식을 취하고, 부모로부터 학대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만들어졌다. 각각의 Cronbach's  $\alpha$  값을 살펴보면, 부모관계가 0.77(21문항), 부모방임이 0.72(4문항), 부모학대가 0.85(4문항)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 및 지역사회(중간체계)는 학습활동점수, 학교규칙점수, 교사관계점수, 교우관계점수, 비행친구수, 지역사회점수로 구성하였다. 각 점수들은 앞에서의 점수들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각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활동에 적극적이며,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며, 교사와의 관계가 좋고, 교우와의 관계가 좋으며, 지역사회에의 통합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점수들의 Cronbach's  $\alpha$  값을 살펴보면, 학습활동이 0.48(5문항), 학교규칙이 0.76(5문항), 교사관계가 0.81(5문항), 교우관계가 0.65(6문항), 지역사회가 0.70(6문항)으로 나타났다. 비행친구수는 교우 간 비행 뿐 아니라 모든 비행경험에서의 친구 수의 평균으로 구성하였다.

공동체의식(거시체계)은 공동체의식점수와 다문화수용점수로 구성하였다. 두 점수는 앞에서의 점수들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각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

고, 다문화수용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점수의 Cronbach's  $\alpha$  값을 살펴보면, 공동체의식이 0.76(4문항), 다문화수용이 0.85(5문항)으로 나타났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성별 학급구성이 교우 간 비행의 가해 및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1에서는 생태체계적 맥락 변인들을 제외한 성별 학급구성이 교우 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모형2에서는 각 생태체계적 맥락 변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모형3에서는 성별 학급구성이 각 생태체계적 맥락 속에서 교우 간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성별 학급구성은 '여학교'를 기준으로, 가계수준은 '하'를 기준으로 가변수(dummy)화된 변수가 투입되었다.

## VI. 분석결과 및 해석

### 1. 분석대상의 특징

표 1은 분석대상인 2,080명의 특징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를 통해 알아본 결과이다. 성별 학급형태에 따른 대상 분류를 보면 단일학급 중 여학교가 25%, 분반여학생이 11%, 합반여학생이 13%, 남학교가 22%, 분반남학생이 14%, 합반남학생이 15%로 나타났다.

교우 간 비행경험 여부에 따른 대상 분류를 보면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4%,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2%로 나타났다.

표 1  
변수의 일반적 특성

N=2080

변수	속성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교우 간 비행	가해여부	.04	.20	0	1
	피해여부	.02	.14	0	1
성별 학급구성	여학교	.25	.43	0	1
	분반여학생	.11	.31	0	1
	합반여학생	.13	.34	0	1
	남학교	.22	.42	0	1
	분반남학생	.14	.34	0	1
	합반남학생	.15	.36	0	1
개인적 기질 (유기체적 특성)	공격성	67.78	17.55	6	100
	사회적 위축	58.83	23.05	0	100
	우울	70.60	18.59	3	100
	자아탄력성	39.75	13.16	0	100
	삶의 만족도	39.10	20.34	0	100
가정환경 (미시체계)	결손	.12	.32	0	1
	가계수준-상	.42	.49	0	1
	가계수준-중	.39	.49	0	1
	가계수준-하	.36	.48	0	1
	부모관계	39.10	12.26	2	81
	부모방임	68.83	16.66	0	100
	부모학대	77.61	20.52	0	100
학교환경/지역사회 (중간체계)	학습활동	40.83	16.43	0	100
	학교규칙	35.38	16.37	0	100
	교우관계	29.48	12.68	0	80
	교사관계	37.37	19.34	0	100
	비행친구수	.45	.97	0	14
	지역사회	41.72	16.58	0	100
공동체의식 (거시체계)	공동체의식	34.19	17.02	0	100
	다문화수용	19.20	11.30	0	60

## 2. 교우 간 비행과 성별 학급구성의 상관관계

표 2

교우 간 비행과 성별 학급구성의 상관관계(*r*)

변인	X	Y	A	B	C	D	E	F
비행가해 (X)	1							
비행피해 (Y)	.190**	1						
여학교 (A)	-.093**	-.050*	1					
분반여학생 (B)	-.064**	-.026	-.199**	1				
합반여학생 (C)	-.054*	.005	-.228**	-.135**	1			
남학교 (D)	.072**	.048*	-.311**	-.185**	-.211**	1		
분반남학생 (E)	.105**	.024	-.231**	-.137**	-.157**	-.214**	1	
합반남학생 (F)	.034	-.001	-.242**	-.144**	-.164**	-.224**	-.166**	1

\* $p < .05$ , \*\* $p < .01$  (양측검정)

교우 간 비행과 성별 학급구성 간의 상관관계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학교는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남학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가해경험에서 분반여학생과 합반여학생은 부적 상관관계를, 분반남학생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 3. 성별 학급구성이 교우 간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표 3

성별 학급구성이 교우 간 비행의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 1 성별 학급구성		모형 2 생태체계적 변인		모형 3 Full-Model	
	B	Exp (B)	B	Exp (B)	B	Exp (B)
(여학교)						
분반여학생	-.749	.473			-.666	.514
합반여학생	.414	1.512			-.040	.961
남학교	2.036***	7.656			1.844***	6.322
분반남학생	2.383***	10.842			2.228***	9.282
합반남학생	1.858***	6.408			1.520**	4.571
공격성			-.024**	.976	-.029**	.972
사회적 위축			.000	1.000	.005	1.005
우울			.009	1.009	-.002	.998
자아탄력성			-.021 +	.980	-.014	.986
삶의 만족도			-.001	.999	-.002	.998
결혼			-.241	.786	-.322	.724
가계수준-상			.012	1.013	-.102	.903
가계수준-중			-.771**	.463	-.843**	.430
(가계수준-하)						
부모관계			.023 +	1.024	.012	1.012
부모방임			.013	1.013	.015 +	1.015
부모학대			-.001	.999	.001	1.001
학습활동			.011	1.011	.016 +	1.016
학교규칙			.015 +	1.015	.012	1.012
교우관계			-.004	.996	-.010	.990
교사관계			-.008	.993	-.007	.993
비행친구수			.352***	1.423	.255**	1.291
지역사회			.006	1.006	.012	1.013
공동체의식			.013	1.013	.009	1.009
다문화수용			-.030*	.971	-.031**	.969
상수항	-4.641***	.010	-3.984**	.019	-4.406**	.012
X <sup>2</sup>	62.59*** (df=5)		86.13*** (df=19)		129.79*** (df=24)	
-2log 우도	660.03		589.74		546.08	

\* $p < .05$ , \*\* $p < .01$ , \*\*\* $p < .001$ , † $p < .1$

표 3은 교우 간 비행의 가해경험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성별 학급구성만 투입된 모형1에서는 남학교와 분반남학생, 합반남학생이 여학교에 비해 가해경험을 할 확률이 각각 7.7배, 10.8배, 6.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모형3에서 생태체계적 맥락 변인들을 통제하고도 유지되어 여학교에 비해 각 남학생 그룹이 가해경험을 할 확률이 각각 6.3배, 9.3배, 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여학생에 비해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서봉언, 2014). 분반남학생이 더 높은 효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해경험에서 ‘성별 학급구성’의 독립적인 효과보다는 ‘성별’로 인한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모형2와 모형3에서 분석된 생태체계적 맥락 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유기체 수준에서는 공격성이 가해경험을 할 확률을 낮추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미시체계에서는 두 모형에서 중간의 가계수준이 가해경험 확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간체계에서는 비행친구수가 가해경험 확률을 높이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거시체계에서는 높은 다문화수용성이 가해경험 확률을 낮추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표 4

성별 학급구성이 교우 간 비행의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 1 성별 학급구성		모형 2 생태체계적 변인		모형 3 Full-Model	
	B	Exp (B)	B	Exp (B)	B	Exp (B)
(여학교)						
분반여학생	.174	1.190			.223	1.250
합반여학생	1.052	2.862			.678	1.971
남학교	1.464**	4.325			1.293*	3.645
분반남학생	1.321*	3.747			1.168 +	3.216
합반남학생	.944	2.569			.602	1.826
공격성			-.014	.987	-.016	.984
사회적 위축			.007	1.007	.008	1.008
우울			-.013	.987	-.017	.984
자아탄력성			.003	1.003	.004	1.004
삶의 만족도			.014	1.014	.013	1.013

변수	모형 1 성별 학급구성	모형 2 생태체계적 변인	모형 3 Full-Model
결혼		-1,230 .292	-1,309 + .270
가계수준-상		-.158 .854	-.241 .786
가계수준-중 (가계수준-하)		-.514 .598	-.583 .558
부모관계		-.026 .974	-.031 .969
부모방임		.015 1,015	.013 1,013
부모학대		-.006 .994	-.004 .996
학습활동		.005 1,005	.005 1,005
학교규칙		-.008 .992	-.010 .990
교우관계		.065** 1,068	.062** 1,064
교사관계		-.023* .977	-.021 + .980
비행친구수		.440*** 1,553	.389*** 1,475
지역사회		-.007 .993	-.004 .996
공동체의식		.012 1,012	.009 1,009
다문화수용		-.031 + .969	-.030 + .970
상수항	-4,866*** .008	-3,656 .026	-3,758 .023
X <sup>2</sup>	10,87+ (df=5)	68,62*** (df=19)	75,11*** (df=24)
-2log 우도	392,29	314,66	308,17

\* $p < .05$ , \*\* $p < .01$ , \*\*\* $p < .001$ , † $p < .1$

표 4는 교우 간 비행의 피해경험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남 학교와 분반남학생이 여학교에 비해 모형1과 모형3에서 각각 피해경험을 할 확률이 4.3배와 3.6배, 3.7배와 3.2배 높은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해경험과 마찬가지로 이는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비행 피해경험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서봉언, 2014). 그러나 같은 남학생임에도 ‘합반남학생’이 비행 피해경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별 효과가 아닌 ‘성별 학급구성’의 독립적인 영향력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중간체계에서 교우관계가 비행피해경험을 할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교사관계가 비행피해경험을 할 확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친구수가 유의미한 확률 증가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시체계에서 다문화수용이 피해경험을 할 확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1패널 4년차(2013) 자료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교우 간 비행의 가해 및 피해여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생태체계적 맥락 변인 중에서 ‘성별 학급구성’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성별 학급구성’의 효과에서 ‘성차’를 넘어서 독립적인 ‘학급 구성방식’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가해경험에서는 ‘성별 학급구성’의 ‘성별’을 넘어서 독립적인 영향력보다는 ‘성별’ 효과가 더 크게 드러났다. 이는 교우 간 비행에 있어 ‘성차’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임을 알려준다. 하지만, 여학생들의 가해경험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폭력의 양상이 비가시적인 관계적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일 수 있다(문용린 외, 2007; 안수영, 이형실, 2009; 조윤오, 2013; Lee & Youm, 2013; 서봉언, 2014). 특히 권준모(1999)는 서구의 'bullying'과 일본의 ‘이지메’와 달리 한국의 따돌림은 관계적 소외가 특징적이며, 이지영 외(2016) 역시 집단 내의 간접적 관계에서의 소외가 한국 청소년 따돌림의 특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교우 간 비행’의 측정이 이루어질 경우, 비행의 성차가 줄어들어 ‘성별’ 효과를 넘어서 ‘성별 학급구성’의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피해경험에서 남학교는 여학교보다 피해경험의 확률을 높이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같은 남학생인 한반남학생의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성별’을 넘어서 ‘성별 학급구성’의 독립적인 영향력의 가능성이 드러났다. 또한,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모두에서 성별 학급구성의 영향력은 생태체계적 맥락 변인들을 통제하고도 유지된다. 이는 앞으로의 청소년의 비행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성별 학급구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나아가 이를 확장하여 다른 학급구성 방식에 대한 검토도 고려해 볼 만한 동기를 제공한다.

독립변인 이외의 특기할 만한 요인으로, 공격성이 가해경험을 할 확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성이 비행경험을 높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배치되는 내용(이혜은, 최정아, 2008)이다. 교우관계 역시 피해경험을 할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나 높은 교우관계의 정도가 따돌림 피해를 낮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Macklem, 2006)와 불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미시체계에서 중간 가계수준만이 가

해경험을 낮출 확률로 나타난 것 또한 상위 가계수준 집단의 비행경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김준호(1994)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또,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던 다문화수용이 가해 및 피해경험을 할 확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변수와 새롭게 투입된 변수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성차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교우 간 비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되, 특히 피해과악에서 성별 학급구성에 대한 고려도 같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에서의 성별 학급구성의 영향력 차이가 나타난 이유에 대한 후속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조운오(2013)는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발생실태 및 유발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다른 학교폭력의 ‘성별 적합 처우(gender specific treatment)’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성별 적합 처우 프로그램’을 ‘교우 간 비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되, 성별을 넘어 성별 학급구성 별로 교우 간 비행의 유발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성별 학급구성을 고려한 ‘성별 학급구성 적합 처우 프로그램(school/classroom gender composition specific treatment)’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권준모 (1999). 한국의 왕따 현상의 개념화와 왕따 연구의 방법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5(2), 59-72.
- 김광웅, 문수경 (2005). 부모-청소년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연구: Bronfenbrenner의 관점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3(1), 71-84.
- 김선애 (2004). 집단따돌림 연구경향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5(1), 73-107.
- 김원중 (2004). 왕따: 의미, 실태, 원인에 관한 종합적 고찰. **상담학연구**, 5(2), 451-472.
- 김은정 (2009). 한국 청소년들의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수용과정. **한국사회학**, 43(2), 85-129.
- 김준호 (1994). 청소년비행의 실태와 원인. **형사정책연구**, 5(1), 63-94.
- 김준호, 노성호 (1992).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231.
- 노성호 (2004). 학교폭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15(1), 87-120.
- 문용린, 김준호, 임영식, 곽금주, 최지영, 박병식 외 15인 (2006).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서울: 학지사.
- 문용린, 최지영, 백수현, 김영주 (2007). 학교폭력의 발생과정에 대한 남녀차이 분석. **교육심리연구**, 21(3), 703-722.
- 박진영, 채규만 (2011).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아동의 관련 변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1), 45-67.
- 박현수, 김준호 (2008). 비행청소년집단의 특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9(1), 327-356.
- 서봉언 (2014). **청소년 비행의 남녀 차이에 대한 메타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송영혜 (2012). **또래관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 송주영 (2013).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양법학**, 42, 221-246.
- 신혜섭 (2005).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청소년학연구**, 12(4), 123-149.

- 안수영, 이형실 (2009).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1(3), 163-176.
- 양경화 (2015).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서울: 공감플러스.
- 오민아 (2013). 남녀공학제도를 둘러싼 논쟁. **여성연구논총**, 12, 89-110.
- 오승환 (2007).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5, 74-98.
- 이완희, 황성현, 이창한, 문준섭 (2017). **한국청소년비행학**. 서울: PNC미디어.
- 이지영, 권예지, 고예나, 김은미, 나은영, 박소라 (2016). 한국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에 대한 심층인터뷰 연구. **언론정보연구**, 53(1), 267-309.
- 이창훈, 송주영 (2009). 집단괴롭힘(Bullying)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한국범죄학**, 3(2), 103-143.
- 이해경, 김혜원 (2011).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문제 현황과 설명변인에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1), 43-68.
- 이혜은, 최정아 (2008).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개인 요인 검증. **청소년학연구**, 15(1), 197-221.
- 임하늘, 최재용, 이윤호 (2015). 생태체계적 접근을 통한 비행의 성차연구. **한국범죄학**, 9(3), 70-102.
- 조영일 (2013).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2), 67-87.
- 조운오 (2013).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발생실태 및 유발요인 차이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1), 155-179.
- Benbenishty, R., & Astor, R. A. (2005). *School violence in context: Culture, neighborhood, family, school, and gend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 (1992). **인간발달생태학** (이영 역.). 파주: 교육과학사.
- Cotterell, J. (2007). *Social networks in youth and adolescence*. London: Routledge.
- Davis, K., Randall, D. P., Ambrose, A., & Orand, M. (2015). "I was bullied, too.": Stories of bullying and coping in an online community.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8(4), 357-375.
- Gee, K. A., & Cho, R. M. (2014). The effects of single-sex versus coeducational schools on adolescent peer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Journal of adolescence*, 37(8), 1237-1251.

- Lee, J., & Youm, Y. (2013). Gender-specific bullying dynamics among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보건과 사회과학*, 34, 299-334.
- Lee, S., Turner, L. J., Woo, S., & Kim, K. (2014). *All or nothing? The Impact of School and Classroom Gender Composition on Effort and Academic Achievemen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Macklem, L. G. (2006). **학교 따돌림의 지도와 상담: 여러 나라의 연구사례** (황혜자, 김종운 역.). 서울: 동문사.
- Miller, A., & Cunningham, K. (2011). Classroom Environment. *Retrieved on, 30(7)*, 2015.
- Olweus, D. (1996). **바로보는 왕따-대안은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 (이동진 역.). 서울: 삼신각.
- Swearer, M. S., Espelage, L. D., & Napolitano, A. S. (2011). **괴롭힘의 예방과 개입: 학교에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동형, 이승연, 신현숙 역.). 서울: 학지사.
- Stromquist, N. P. (2007). The gender socialization process in schools: A cross-national comparison.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 2008 Education for All by 2015: will we make it*.
- Thornberg, R. (2010). Schoolchildren's social representations on bullying causes. *Psychology in the Schools*, 47(4), 311-327.

## ABSTRACT

### The impact of school/classroom gender composition on delinquency among classmates

Lee, Juneyeop\* · Shin, Hyungjin\*\*

Utilizing the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of 2013, our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school/classroom gender composition on delinquent behavio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While our key independent variable(school/classroom gender composition) assigns male and female students to three different types of classrooms(single-sex schools; same-sex classes in coed schools; and mixed-sex classes in coed schools), the outcome variables in this study are coded as dummies for either victimization or perpetration experiences of delinquency among schoolmates. The results from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uggest that different types of classrooms based on gender composition(i.e. school/classroom gender composition) have an independent influence beyond the mere 'sex difference' on the outcome variables, especially on the victimization experience of delinquency. A policy implication of our study is that programs addressing juvenile delinquency must consider school/classroom gender composition as an important ecological-systematic factor.

Key Words: school/classroom gender composition, juvenile delinquency, peer relation, KCYPS

투고일: 2017. 9. 11, 심사일: 2017. 12. 11, 심사완료일: 2017. 12. 18

---

\* Department of Soci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 student, The first author

\*\* Department of Soci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Corresponding author, h.shin@knu.ac.kr